



원청교섭

비긴즈

2026-4호

진짜 사장을 찾아서

발행일 2026.8.20.(목) | 발행처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 발행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 편집 정책실 ☎02-2670-9502 | SNS ○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쟁의권, 상건례 쟁취 결의대회 개최 "끝까지 함께 투쟁"

포스코 원·하청 조합원 400여 명이 8월 20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원청교섭 투쟁 승리, 차별 직고용 중단, 온전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끝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7월 14일 중앙노동위의 조정 중지,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을 통해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회는 14일 포스코와의 교섭 상건례와 함께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꽉 막힌 원청교섭, 정부 역할 실종 규탄 금속노동자들 전국에서 한목소리

금속노조가 19일 서울, 대전, 천안, 전주, 광주, 창원, 통영, 울산 동부, 서산 등 각 지역 노동청 앞에서 원청 자본에는 교섭 이행을, 정부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원청교섭 요구 당사자들은 각 지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원청교섭 촉진 역할을 거부한다면 금속노조는 대자본 투쟁은 물론이고, 올 하반기 대정부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막나가는 동희오토 중노위 사용자 판단에 불복해 소송 추태

동희오토 원청이 충남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까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강행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동희오토 교섭 거부하는 법 절차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하는 전형적인 노조법 개정 무력화 시도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청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금속노조는 19일 서산지청 앞에서 노동위 결정을 무시하고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동희오토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13일 3차 원청교섭을 진행했다. 1, 2차에 이어 3차 교섭에도 사측은 참여하지 않았다.

“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



김선영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영업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규직일거라 생각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정규직 영업사원과 비정규직 영업사원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도 모두 정규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현대자동차는 경영난을 이유로 정규직 영업사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비정규직 영업사원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했고, 이후 현대차 판매전시장은 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하는 지점과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하는 대리점으로 이원화했습니다.

비정규직 영업사원은 정규직 영업사원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영업사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기본급,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니 차별과 착취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15년 노동조합 설립 후 현대자동차에 4대보험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교섭 거부와 대리점 폐업으로 조합원을 골라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조합원들이 해고 되었고, 11년이 지난 지금도 대리점 폐업으로 해고 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수십 번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제도를 바꾸기 위한 국회 앞 천막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3년간 진짜사장교섭하게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한 것입니다. 작년 우여곡절 끝에 노조법은 개정되었고, 2026년 3월 10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현대자동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현대자동차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것을 현대차가 결정하는데, 이런 해괴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웁시다.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